

三叉神經痛의治療一例

金 鍾 煥

무슨病人지 모르고 그저 견디기 어렵고 살수없다고 或은 멀정 하였다가 괴실에 作用갓다고 하며 보는 사람도 재사람이며 그렇다고 할만한 病人데 내가 20余年 臨床生活 아래 三例에 對하여 그 中 一例를 들으서 諸賢의 參考에 제공코저 하는 바이 올시다

患者 金根植

住所 咸南 安區郡 新高山

職業 農業

學歷 中等 程度

年令 45

性別 男子

主訴 右側 三叉神經道 二枝 眼窠下神經 領域이 버러져가는 것도 있고 숨숨 개러우며 가너려지는 것도 있고 따끔따끔 하기도 하고 멧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만치 形容 하기는 어려운데 견디지 못하겠다고 말 합니다

既往病歷

特殊한 病으로 알은 記憶은 없다

現病歷

13年前 부터 始作인데 처음에는 1日에 3-4回 차차 回數가 느려서 1時間에 3-10回 될때도 있다고 하며 春秋로 一層더하고 冬節에는 거이 없을때도 있다고 하며 漢藥及洋藥을 많이 使用 하였으나 別效果無 하였다고 한다

現 症

檀紀四二七二年四月에 來院 本症勢을 말하고 甚하여 저서 一時間에 七-十回가 량 發作 한다고 한다

處置及經過

身體는 쇠약하다 口腔內檢査를 하였으나 Decay or pyorrhea도 없다 우선 Scalling을 하고 口腔內를 詳細히 檢査해 본즉

內로 부터 原因 되어 發生한 病이 아니라는 것을 認識 시키고 三叉神經痛이라는 것을 말하고 下眼窠孔에 Procein 2% 1.5cc 로서 傳達麻酔 注射 하여서 보내고 明日다시 來院 하시라 命하다 그 다음날 와서 그는 말이 3-5時間後에 다시 發作 되었다고 하다 三叉神經痛第二枝이 分明 하다고 하고 그神經을 麻痺 시키거나 切斷手術을 하는 方法 막게 없으니 他醫 에게 가서 여러 方面으로 알아 보고 고칠수 있으면 고치고 그러지 않고는 나의 方法 되로 治療을 받을려면 來院 하라 보내다 그다음날 다시와서 如何히 하시든지 先生의 方法에 順應 하겠다고 하다 그래서 먼저 鹽酸 Procein 2% 1.5cc를 傳達麻酔 注射 하고 Alcohol 80% 1.5cc를 同一局所(下眼窠孔) Injection하다 3日後에 다시 來院 하라해 드니 왔는데 좀부어 있고 三叉神經痛症을 없으셨다고 인제 좀 살겠다고 말하며 그領域은 麻痺狀態에 있다고 하다 一週日後에 왔는데 부기는 다 나리었고 麻痺狀態는 그대로 있다고 하다

三年後 檀紀四二七五年 다시 와서 又 發作이 되었으니 다른 新藥이 發明 되지 아니하였느냐고 하는데 나는 잠시 答을 어물 어물 하며 내 自體의 發展못한것을 부끄럽게 生覺하는 同時에 더 新 治療法이 發明된 것을 아지 못하였다 하고 만 一週日後에 다시 오라하고 學究 生活하는 友人에게 물어보았다 亦是 特別한 別答을 못봤고 一週日 다시은 患者에게 아직 特殊한 方法이 없다하고 다시 鹽酸프로카인 2% 1.5cc와 Alcohol 90% 1.5cc를 注射하여 보내다 三日後에 와서 前보다 좀 더 부었고 딱딱하여 고통

